

발간 필요 시 문 2 부지 정회원

세상을 바꾸는 걸(Girl) 페미니즘,
집박으로 걸/어 나가자!



청소년이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글 차례

고달_ 만화 “가족처럼 모셔요”

엠겐_ 엠겐네 가족 이야기

한날_ 어머니*청소년 해방 전선

공현_ 가족의 대안

난다_ “이갈리아의 딸들” 서평

부록_ 2008 청소년 인권선언

광고_ “안티 크리스마스” 직접 행동단

다시 시작하는 청소년 인권 동아리

빨강 물고기 시즌 2

간갑하고 좁은 서항 같은 학교, 학원, 집, 거리, 그리고 사회,
물감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먹어가는 서항 속에서
우리는 배짱배짱 아가미를 허덕이며 처절한 자막질을 해냅니다.

'어 이상 어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

주문을 외워보세요.

순간, 세상이 짜잔 하고 변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마음속 한켠에서 빨강 물고기 한 마리가
점들대며 헤엄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청소년들의 마음 속 빨강 물고기를 위해
청소년인권동아리 "빨강물고기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빨강물고기 시즌2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을 같이 재밌게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청소년인권에 관심 갖기 시작한 분, 청소년인권운동의 주변을 맴도는 분,
발칙한 청소년 행동에 힘을 보내고 싶은 분 모두 해명해 오시길,
나와와 권위를 잊은 비청소년 분들도 환영합니다.

12월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Girl Feminism).

집박으로 걸어 나가자!

girl power

날: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장소: 천포크 서울서부(아우렛 7번 출구 승지빌딩 88)

"집박으로 걸어 나가자"는 지금까지 외부의 비판이나 개입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집/가족에서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세성의 독립과 자립의 꿈을 지지하기 위한 활동을 같이 만들어
합니다.

프로그램

시작부터 기대되는 코프닝, '말괄량이 wivi 루스타킹'
여성과 청소년이 권력을 지닌 세상, 석칼국 '이탈리아의 자식들'
드라마와 영화 속 가족의 천태만상을 분석한, 몇 가지 쟁점 토론

이와 함께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세성주의 힘이 매끄러워 발간한
'미니 자로집'을 연말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장세 문의는 카페(cafe.daum.net/youthhr)
손전화(한남 011-9014-8904)를 이용해주세요.

특별 기고

고달_ 만화 "가족처럼 모셔요"



◆ 걸 페미니즘 1

| 엠겐_ 엠겐네 가족 이야기 |

울 가족? 뭘 쓰지? 뭘 쓰지? 방바닥에서 뒹굴뒹굴거리며 고민하다가, 마침 동생이 옆에서 TV 보고 있길래 함 물어봤다. “야, 너한테 가족이 뭐냐?” 뚱한 표정으로 대답을 않더니, 흘깃 방문 밖을 내다보고나서 툭 내뱉은 말. “귀찮은 거.”

명답이다, 멋져부러.

마침 거실에선 셋째가 한참 엄마에게 갈굼을 당하고 있던 중이었다. 친구집 좀 작작가라부터 시작해서 방은 왜 이꼬라지냐 빨래는 왜 자꾸 만들어 내놓느냐까지, 딱 내가 미연이만 하던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자주 들던 소리들이다. 왜 귀찮다고 했는지 십분 이해가 갔다. 엄마의 잔소리는, 한 마디로 소음공해다. 시끄러울뿐더러 신경을 마구마구 긁는다.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도 듣고 있다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카악. 욕 좀 하지 말란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리 없는 절규도 몇 번씩 하게하고, 이런 소음공해를 하루 평균 꼬박 한 번씩 들어야 한다는 건 분명 귀찮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 밖에도 이 집안엔 귀찮은 것들이 넘쳐난다. 우리 집은 무척, 시끄럽고 정신 없고 지저분하다. 자그마치 일곱 식구다. 부모 둘에 자식은 다섯, 그것도 딸만 다섯 오 자매다. 방은 치우기가 무섭게 어질러지고, “조용히 좀 하자” 소리는 무한반복 해봤자 무한히 씹힌다. 그나마 요즘은 세 꼬맹이들(셋째 12살, 넷째 9살, 다섯째 6살)이 좀 크긴 커서,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아, 근데 이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게 단순히 꼬맹이들이 자랐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엔 여러 겹의 속사정이 있었다.

오자매 사이엔 명확한 서열이 있다. 둘째가 대빵이고, 세 꼬맹이는 톨마니들이라는 구도인데, 세 꼬맹이들 사이에서는 셋째가 또 나머지 둘보단 위치가 높다. 꼬맹이들이 예전보다 조용해진 것도 이런 서열구조의 영향이 있었다. 둘째가 심하게 장난치고 떠든 애에게 손들기 등의 벌을 내리며 제압을 시도하던 것을 시작으로, 애들이 점점 양전해졌다. 둘째의 스포르타식 교육과정으로 인해 아이들이 서서히 길들여져가던 모습을, 나는 보았느니. 둘째가 무섭게 굴수록, 처음엔

장난 같았던 벌이 점점 진지해지고(흡사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그것처럼)애들이 둘째 말이라면 찢찢 매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둘째의 “조용히 해!” 한 마디에 꼬맹이들이 정말로 조용해지 것쯤은 일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둘째가 물 떠오르면 셋째가 군말 없이 물 떠오고 셋째가 공책 좀 갖다달라고 막 내한테 시켰는데 막내가 말을 안 들으면 “야!” 왈왈하면서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식의 문화가 또아리를 틀었다. 보면 여기저기 명령 식 말투가 난무한다. 이거 해, 저거 해, 안 해? 험악한 목소리. 대충 스킷듯 보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는데, 정신 차리고 제대로 들여다보면 좀 무서울 정도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난 뭘 했느냐 하면, 철저히 방관했었다. 둘째가 애들 데리고 뭘 하든, 애들 조용히 시켜주니까 좋길래 그냥 내비뒀다. 특별히 스포르타식 교육에 나서지 않아도 난 둘째보다 언니고, 그것만으로도 둘째는 나가진 통제하지 못 한다. 그 결과 아무 일 안 해도 자연스레 난 꼬맹이들한테 윗대가리였고, 나 역시 물 떠오기 같은 심부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켰었다. 권력, 강자와 약자는 가족 내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언니가 동생한테 그런 것쯤 시킬 수도 있지’는 개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명령할 수 있다니, 시키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에게 갖는 폭력성은 그 어떤 허울로도 가려지지 않는다. 그 허울이 가족이 됐든, 다른 무엇이 됐든.

권력에 대한 애길 조금만 더 해보자면, 사실 서열의 최상층은 말할 것도 없이 엄마 아빠다. 예전엔 아빠가 엄마보다 섰었는데 이젠 둘이 비등비등하다. 엄마 성격이 워낙 괘괄해서 가끔은 엄마가 아빠보다 위일 때도 있다. 엄마가 아빠와 위치가 비슷해지고 가끔은 더 위도 될 수 있게 된 시점은 엄마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아빠에 비해 훨씬 돈을 적게 받는 아르바이트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부터 부쩍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빠가 일을 그만두고 엄마만 일을 하던 무렵엔, 엄마의 파워가 그야말로 최고조, 엄마가 대빵 아빠는 개갱이었다. 이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알게 된 건, 부부 사이의 권력관계는 경제적 능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구나- 하는 거였다.

내가 울 가족을 생각하며 떠올렸던 단편 몇 개를 늘어놨다. 말 그대로 단편이다. 자매들 사이의 위계관계, 경제적 능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부 사이의 권력, 써놓고 보니 어찌 조금 부정적이다 싶은 느낌의 것들 밖에 없지만, 이 글 밖의 우리 가족은 권력이니 뭐니 내가 했던 말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안방에서 쇼

프로를 보며 완전 화기에애하게 웃고 떠들고 있다. 글 안에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또한, 지금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역시 우리 가족의 전부는 아니다.

동생은 가족을 '귀찮은 거'라 말했다. 엄마가 생각하는 가족이 뭐고 아빠가 생각하는 가족이 뭐고, 둘 한테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가족 속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 지는, 엄마의 잔소리와 아빠의 술주정을 통해 대충은 알고 있다. "내가 집안일 하는 기계도 아니고 말야.." 엄마의 한탄,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야?" 다들 정말 그리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가슴이 서늘해졌던 아빠의 꾸밈.

가족 안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이유로 제대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나만 해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에 시야가 가려져 그동안은 울 가족들 노는 꼬락서니(군대를 연상시키는 자매들 사이의 문화 등)가 어떤지 잘 모르고 살았다. 가족이라는 덮개를 걷어치우고 나면 보인다. '나를 평화로운 우리 집' 이라는 환상 뒤에 있는 실체가 보인다. 자신을 집안일 하는 기계로, 돈 벌어오는 기계로,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며 사는 개인들이 보이고, 서로를 그런 기계로 강제하는 엄마라는 위치, 아빠라는 위치, 자식이라는 위치의 굴레가 얼마나 그 개인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지가 보인다. 가족이라는 평화롭고 따사로운 단어와는 전혀 안 어울리는 '권력' '위계' '장자' '약자' 등의 단어가 울 가족 내에서도 얼마나 횡행하고 있었는지가 보인다.

내게 있어 '가족'은 그냥 나랑 같이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좋은 가족'을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이랑 위계 따위가 없는 관계를 맺는 일에는 관심이 있다. 중요한 건 엄마랑 아빠랑 동생들이랑 나랑 가족이란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이걸 이 글 쓰면서 처음한 생각이다. 자기 가족 뜯어보기, 요거 요거 꽤 괜찮다. 이 글 읽은 사람들도 다들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추!천!



한날_ 어머니*청소년 해방 전선,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

'어머니 CEO'와의 투쟁이 시작된다?

"학생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세요."

두 달 전, 무한 경쟁을 조장하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을 때, 기다란 현수막을 펼쳐 든 몇몇의 여성들이 이들의 행렬을 가로막았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소속이라는 이 여성들은 생태학습 등의 편법으로 학생들의 시험 볼 권리를 막는 전교조 교사들을 규탄하며,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등교거부가 의무교육의 교육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이들 논리의 부당함은 둘째치고, 이들이 이렇듯 강력하게 '학모'의 정체성을 띄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가 자못 궁금해졌다.

강남 엄마 열풍, '어머니 CEO' 등 요즘 기혼 여성의 대세는 '자녀 교육 매니저'란다. 물론 특정 지역,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보통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뒷받침 돼야 실현 가능한 일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꿈의 실현 여부와는 별개로 학원 하나 과외 하나 더 보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어머니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볼 때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이 많은 어머니들의 욕망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가족 안에서의 권력은 어른, 그 중에서도 남성 가부장(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은 거의 어머니가 전담하기 때문에 자녀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나 간섭은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성년'인 청소년의 권한을 부모(어른)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사회에서 '충동적인' 청소년이 자신의 욕망을 솔직히 드러내는 순간 그 충동은 어머니와의 싸움으로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다. 피곤해서 학원을 빠지거나, 기분 전환 삼아 염색을 했거나, 애인과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발각'되는 경우 그것은 곧장 '일탈'로 규정되고 용돈 삭감 및 외출 정지 등의 '규제'로 이어진다.

어머니는 가부장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분명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서있다. 그러나 청소년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그들을 규율하고, 관리하는 억압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요즘은 학교와 사회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어머니의 압박의 정도 또한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현재적 권리를 주장하며 가족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는 청소년은 어머니를 적으로 삼아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일까?

동전의 양면- 가족 내 어머니 역할의 강화와 청소년의 억압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포괄적인 애정을 모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미지화 되어 있다.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재앙 속에서 자식을 움켜 안고 죽은 어머니의 모습은 사랑과 헌신으로서의 모성의 발현으로 추앙받는다. 이와는 달리 자식(주로 아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그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이끄는 어머니의 모습은 뒤틀린 모성의 예로 영화나 드라마에 곧잘 등장한다. 모성의 본질이 사랑이든 집착이든 간에 둘 다 모성을 여성이 가진 본래적이고, 자연적인 품성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모든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서 초인에 가까운 용기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전에 어머니가 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여성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을 쉽게 여성의 고정적인 특성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그것이 특정 시기 이후에 더욱 강조되었으며,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제도화된 측면이 많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순진무구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기의 탄생과 모성을 전제한 여성의 어머니 역할의 강화는 동시에 이루어졌다. 가족이라는 말이 같은 핏줄의 부모와 자녀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근대 자본주의 등장부터이다. 가족이 부부 중심의 폐쇄적 단위가 되어감에 따라, 그 단위의 산물이자 유지의 근거이기도 한 아이의 존재가 더욱더 중요해졌다.¹⁾ 아이의 양육



1) 배경내, '아동기의 신화를 넘어', "200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과 미래에 대한 책임은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이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모성을 지닌 어머니의 역할이자 의무로 인식되었다. 이렇듯 여성의 무보수 노동에 기대 값싸고 안정적으로 재생산을 담보해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복원한 국가 정책의 결과 여성과 아동/청소년은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겪게 되었다. 여성은 사적 공간인 집에 유폐되어 어머니와 아내로서만 그 역할을 인정받았으며,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각종 권리를 부모에게 위임하는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제도화된 모성, 어머니와 청소년의 굴레

특히 우리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모성의 실현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났다. 해방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국가에 의한 개인의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개인의 보호는 오로지 가족에게 달려있었다.²⁾ 가족의 이해가 곧 나의 이해와 일치하고, 내 자식이 잘 되어야 나의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내 자식에게 나와 같은 삶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어머니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졌다. 소를 팔고, 전답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켜 계층 상승을 이루겠다는 환상이 어머니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이들 중 절대다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각종 교육비용에 휘둘리며 부잣집 자식들과 몇몇 특출한 자식들이 성공하는 틈바구니에서 들러리 역할을 할 뿐이었다. 현실과 이상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여전히 교육의 관문을 통과하여 사회적 성공을 거머쥘 수 있으리라는 환상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은 경쟁 사회에서 가족을 성공으로 이끄는 재테크, 자녀의 입시 경쟁을 성공적으로 지휘하는 능력 있고 적극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강조되면서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쥐고 주체적으로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³⁾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 자신으로서의 삶의 주체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화된 모성의 역할이 끝나고 어머니에게 남는 것은 사회 보장 제도 없는 사회에서의 빈곤하고 우울한 삶일 뿐이다. 모성은 사회적인 비용 부담을 개별 가정의 여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며, 자녀 양육의 문제를 전적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

2) 임옥희, '제도화된 모성과 자녀 교육 히스테리', "여성이론 4호".

3) 이박혜경, '신가족주의와 여성', 여성학 특강 발표문.

게로만 축소시킴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시선을 물리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제도화된 모성은 여성의 삶을 움직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집안에서의 자녀, 즉 청소년의 억압과도 연결된다. 가족 내에서 제도화된 모성이 실현된다는 것, 양육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동시에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의존도가 절대적인 청소년은 무권력 상태에서 학대와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모성이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아닌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권력의 차이에서 오는 경제적, 정서적, 문화적 분배의 문제임⁴⁾을 살피는 것은 가족 내에서의 청소년의 억압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 핵심적이다. 집에서 노동하는 여성에게 집이 사적 공간이 아니듯, 청소년에게도 집은 사적 공간이 아니다. 사회에서의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학습하는 공간이며, 더욱이 학교 교육에서의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집은 학업 수행의 또 다른 공간으로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기 전 잠시 머무는 공간,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수면을 취하는 공간인 집은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른들의 규율과 규칙이 아이들을 지배한다.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한 '어머니 CEO' 현상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경우 집에서의 억압의 강도가 강화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가족이 경쟁의 단위로 부상하면서 학교, 사회에서의 압박이 노골적으로 가정 내에서도 지속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사처럼,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감시 및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청소년은 자기 여가, 학업, 노동에 대한 계획에서 더욱 소외되고 관리의 대상자로만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친부모이거나, 친인척이거나, 아동보호시설이거나. 아이들의 욕망은 '아무도 모른다'

가족 내에서 어머니 역할에 대한 강조는 어머니인 여성 자신에게도, 그 역할의 대상자인 청소년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모성이라는 제도화된 굴레를 통해 양상은 다르지만 중국에는 공통의 사회적 이탈을 겪고 있는 어머니와 청소년은 함께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서야한다. '어머니가 청소년의 적'이라는 문제 설정으로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어머니와 소통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자'는 식의 해결책은 느슨하기만

4) 임옥희, 앞의 글.

하다. 어머니와 청소년의 모순된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기존 가족의 개념과 자녀 양육의 개념 자체에 탄지를 거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극단적인 물리적인 폭력만이 가족 안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학대 또는 폭력이라는 기존의 좁은 인식의 틀을 바꿔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권력관계 자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청소년이 직접 자기 권리의 주체로 일어설 수 있으며 어머니 또한 새로운 관계망 속에서 자기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부모의 권력이 보장되는 제도화된 산물인 친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던져져야 한다. 최진실 씨의 죽음 이후 친부인 조성민 씨에게 자연스럽게 친권이 부활하게 되는 법령의 허점을 놓고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친권 결정이 나와 한다"는 여성계의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친권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 아이를 위한 친권은 없다. 친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무력화와 삶 전반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전제하기 때문에, 친권개념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고서 가족 내 청소년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⁵⁾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혈연 가족 중심의 가족 제도의 해체, 특히나 같은 피를 나눈 부모에 의한 청소년의 양육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혈연 가족 중심주의는 여성이 '어머니'가 아닌 다른 존재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상상력을 제약하고, 청소년이 부모나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과 가족을 꾸릴 경우 '비정상'적이고 결핍된 환경에 놓여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끝을 맺는 입양아 친부모 찾기 TV 프로그램만 봐도 우리 사회의 척박하고 결핍된 가족관이 여실히 드러난다. 막연히, 맹렬하게 친부모(주로 어머니)를 찾는 입양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송 내용에서 그들의 결핍된 정서를 강조하고 친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배경을 유독 구슬프게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양아⁶⁾ 자신이 느끼고 있는 욕망과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전에 혈연 가족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중시하는 이 사회의 강력한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에 의한 아동의 양육이 당연히 되는 사회에서 그 당연함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은 아무런 사회적 지원도 없이 위험 상황에 노출된다. 어머니가 떠난 후, 유통기한이 지난 편의점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다 발견된 4명의 아이들의

5) 친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 자료집의 공헌 글 참조.

6) 성인이 되어 부모를 찾는 경우 더 이상 입양 아동이 아닐 텐데, 계속해서 이들을 '입양아'라고 호명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들의 어릴 적 입양 경험을 강조하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부각시키는 명칭은 아닐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아무도 모른다'는 정상 가족 중심 시스템의 허점과 그 의곽을 잘 보여준다. 당국에 신고하면 아동보호시설에 분산되어 들어가야 하니 신고할 수도 없고, 나이가 어려 취업을 할 수 없으니 경제적 능력을 갖추 수도 없었던 아이들은 결국 '아무도 모르게' 죽거나 '아무도 모르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해 간다. 아이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주어진 선택지대로 양육될 수 있을 뿐이다.



즐거운 우리 집? 지겨울 뿐이지!

청소년은 오지랖 넓은 어른들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주체적 권리와 독립과 자립을 필요로 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사라져야 여성이 가족 내에 묵여 있도록 만드는 가장 큰 명분인 모성 이데올로기와 청소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의무 역시 사라질 수 있다. 여성이 어머니 역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이에 대한 유기 또는 책임 방기가 아니다. 도리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가족 또는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구명난 사회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진실을 건드리는, 까칠하고, 버릇없고 그리고 위험한 청소년과 여성들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청소년과 여성이 함께 집밖으로 걸/어나가야 '즐거운 나의 집'의 환상은 깨질 수 있다.

♣ 끝 페미니즘 3

공연_ 불행이 필연인 가족을 바꿔!

교과서나 백과사전에서 흔히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이자 매우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는 '가정'에도 '폭력'이 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은 '가정폭력 등 특별법'이나 '가정폭력방지특별법'처럼 법 명칭에서도 공식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말이다. 아니, 사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성단위이자 '건강'('건강가족?')해야 할 가정에 폭력이라니! 더군다나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정도로 그 실태가 심각하다니!

이 '가정폭력'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과 자식에 대한 부모/어른의 폭력이 있다. 가정폭력에는 이와 다른 가정폭력의 유형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유형으로 저 둘을 꼽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저런 폭력들이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셋을 꼽는다면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도 포함될 것이다.)

가정폭력을 가족 간의 사적인 일로 간주하고 개입을 꺼리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청소년-아동에 대한 폭력을 '체벌'이라고 하며 그 정도가 극히 심하지 않으면 폭력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인식은 자식에 대한 가정폭력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이야기를 낫설게 느끼겠지만 말이다. 그나마 여성(아내)에 대한 폭력이 범죄이며 폭력이라는 인식이 옛날보다는 조오금 더 확산된 건 여성운동의 성과라고 해야 할까? 다만 분명해보이는 것은, 현재의 가정이 청소년과 여성 등 약자에게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가정에서 청소년들은 이런 직접적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인권침해나 제한을 당연하게 경험한다. 여성들도 여러 가지 제약, 불평등, 인권침해 등에 노출되어 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글에서 언급될 테니 포괄적으로만 표현될 테니 넘어가고, 이처럼 폭력들이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빈발하는 것에는 그런 폭력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조건

과 구조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그 조건과 구조는 가정/가족의 조건과 구조일 수도 있겠으나 동시에 가정/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자체의 조건과 구조이기도 하다. 가족과 사회는 제법 끈끈한 공모 관계에 있다.

권리이자 의무라는 이중 불행

친권은 청소년의 가족 안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하기 위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개념이다. 흔히 친권은 권리이자 의무라고들 말한다. 이 말은 실로 친권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친권이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친권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억압할 권리(권력이라고 해야 옳을까?)인 동시에 친권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의무라는 점에서 말이다. 말하자면 이중의 불행인 셈인데, 민법상 친권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권 행사 대리, 법정대리인 등등도 그렇지만, 포괄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서 통용되는 친권은 더욱 그렇다.

친권을 가진 사람은 NEIS 시스템이나 성적표나 에이즈 감염 사실 통보나 위치 추적 등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청소년의 정보인권이나 사생활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침해할 수 있으며, 거소지정권이나 징계권이나 보호·교양의 권리 등을 근거로 청소년들의 삶 전반을 통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강압적 힘을 동원하는 것도 가능해서, 징계를 한답시고 학대를 하거나 말라비틀어질 정도로 굶기거나 하지 않는 한은, 적당히 두들겨 패거나 감금하는 것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된다. 친권은 가족에서의 청소년인권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주요 요소이다.

그러나 동시에 친권을 가진 사람은 청소년을 양육할 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떠맡는다.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이 나라에서 들어가는 돈도 돈이고,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질서를 조금이라도 어지럽혔다 하면 금방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 가정교육이 안되었다, 등등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사회적 보장 및 지원이나 교육 등은 부족하고 미비하지만 하고 교육 시스템도 막장이지만 어떻게든 키워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는 이 사회에서 양육을 맡고 있다고 간주되는 여성(어머니 등)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정/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에서 친권의 재구성은 피할 수 없

다. 친권은 약화되어야 하고 분산되어야 하고, 어쨌든 사라져야 한다. 친권이라는 게 법적인 것인 동시에 위낙에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니만큼, 가정 안에서의 청소년인권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의식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1·2인 친권자의 독점적인 영향력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공동 양육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친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으니, 그 중 으뜸을 '주거'의 문제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집 떠나와... 어디로?

“집이나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연은 너무나 기구하고도 장대하기만 한데, 이 넓은 지구 위에 막상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는 게 가출이 지니는 보편성이다.”

김진숙 씨가 『소금꽃나무』 중 「눈이 없는 용」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열다섯 살 가출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첫 부분에 쓴 이 말처럼, 가족/가정을 나오면 우리는 이 넓은 지구 위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자신을 보게 된다. 물론 아주 잠시 몸을 의탁할 곳들은 있을 수 있다. 쥘방이나 여관(그나마 이조차 '청소년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다.)이든, 친구 집이든, 친척 집이든. 그러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 갈 수 있는 주거를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도 가출을 그동안 서너 번 정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같이 사는 강아지의 처우 때문에, 성적이나 학원 등의 압박 때문에, 그리고 진로 문제 때문에 등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 공통점은 가정/가족에서 부모에게 종속되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부모의 뜻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삶에 회의를 느껴서, 아니면 그런 것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저것 행동에 앞서 생각하는 게 많은 성격이었던 내가 가출을 결행하지 못한 것은, 집을 나와서 결국 갈 곳이 없다는 것 때문이었다. 가정/가족에서 부모에게 종속되어 사는 삶이 불행해서 그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보려고 가출을 생각하는데 도무지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갈 곳은 훈련소 아니면 기숙사(기숙학원??) 말고 다른 어디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

이는 따져 보면 이 사회 일반적인 주거권 및 부동산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기도 하다. 가족/가정을 떠나서 새로 살 주거공간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부동산 거품 사회에서, 3~4명(가족)이 연합해서 돈을 벌어도 집 하나 구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가족/가정을 떠나서 살 곳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적 권리가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나, 더 많은 노동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주거 현실은 사람들이 아무리 가정/가족에 대해 불만을 느끼거나 거기에 매여 있는 삶에 불행을 느끼더라도 쉽사리 가정/가족을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현재의 가족/가정을 넘어서 대안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비롯한 사람들의 주거권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경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양한 방식들이 가능하겠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청소년 생활 보조(또는 소득 보전), 노동 기회 확대 등과 가정에서 벗어나더라도 주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의 시설이나 시스템 확립 등을 이야기해볼 수 있다.

가족 복원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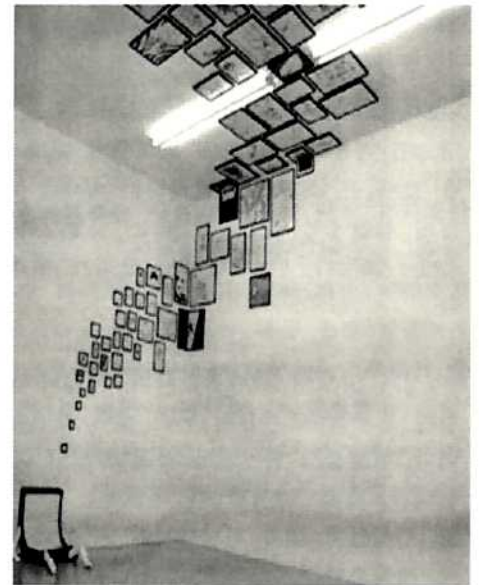
가족에 대한 이런 지적들을 '배부른 소리'라고 일축해버리려 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란 것을 안다. TV나 신문에 연일 나오는 것은 가정이 없어서, 가족을 잃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들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가족을 잃는 것 / 가족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너무 분명해 보이는데, 어찌 가족을 해체시킬 게 뻔한 그런 위험스러운 주장을 하느냐는 것이다. 가족에 종속된 삶을 벗어난 독립을 꿈꾼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가장', '고아', '10대 미혼모' '조손가정', '붕괴된 가족'의 삶을 비추는 영상들은 가족 없는 삶의 피폐함을 보여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나 동성애자 등,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추구하며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와 조건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질문해보아야 한다. 왜 가족이 무너진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가족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고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사회적 보장들은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의 반증이며, '정상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습들이 강고하다는 의미이다. '가족을 구

성할 권리 요구'도 정확히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라는 요구이자 평등에 대한 요구로 보는 것이 옳다.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청소년과 여성의 더 독립적인 삶을 위한 이야기들은,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이런 '정상 가족'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불행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오히려 가족 복원을 외치며 '건강 가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불행을 연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가족은,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이 사회의 기본적 구성단위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가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불행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불행한 가족'은, 가족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화목한 가족", "즐거운 집", "가화만사성" 등등의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불행과 폭력을 필연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가족을 복원하는 데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재구성하고 서로 더 독립적일 수 있고 더 평등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것인가?



♣ **골 페미니즘 4**

| 난다_ “이갈리아의 딸들” 서평 |



<이갈리아의 딸들>. 처음 이 책을 접하고 읽는 동안, 이상하게 잘 읽히지 않아, 몇 번씩 되돌아가서 다시 읽고 다시 읽고를 반복했다. 보통 나는 글이나 책 같은 걸 읽을 때 머릿속으로 이미지나 그림을 떠올리며 읽는 편인데, <이갈리아의 딸들>을 읽는 동안은 그림이 잘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나오는 '웬', '맨웬' 등의 생소한 단어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참고로, '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 '맨웬'은 '남성'을 뜻한다.) "결국 아이를 돌보는 것은 맨웬이야."로 시작되는 이 책의 첫 장면부터 나는 '익숙하지 않음'을 감지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무엇이 익숙하지 않았던 걸까? 왜 익숙하지 않았던 걸까?

벳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페트로니우스, 맨웬이 무슨 벳사람이냐고 비웃는 여동생 바, 맨웬의 페니스를 받쳐주기 위해 맨웬들이 입는(입어야 하는) 폐호, 신문을 보며 큰 소리로 투덜거리는 아내를 위해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는 남편, 그렇게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일명 '하우스바운드(housebound)'로 묘사되는 맨웬들- 그렇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과 남성이 뒤바뀐 채, 등장한다.

여성과 남성이 뒤바뀌었다니, 여성과 남성이 어떻길래?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다. 지금이 무슨 남녀 차별이 있느냐, 지금은 남성/여성이 평등한 시대다, 여성들도 바깥일을 하질 않느냐, 집안일도 나눠서 하지 않느냐, 조선시대가 아니다, 라고.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다르다. <이갈리아의 딸들>에서의 일상생활들, 인물들의 대화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새삼스럽게.

이 소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게 된,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콧속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특히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니까... 지극히 자연스럽게 된다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사실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한 것들로 가장 대표적인 월경, 임신, 출산이 그것이 어떤 사회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얘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갈리아에서는 여성의 월경, 임신, 출산은 굉장히 성스럽고 위대한 일이다. 여성, 웬의 특권인 것이다. 이러한 이갈리아의 웬의 특권은 웬이 자연과 생명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이다. 여성들의 평균 월경 주기가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갈리아의 달력을 아마 이 월경 주기를 한 달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갈리아의 일년은 열 세달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도 여성이 자연과 가깝다는 것은 꽤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로 얘기되어왔다. 이것 또한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만들어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았던 것들이 사실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아닐까 싶다. 소설 곳곳에서 틈틈이 발견되는 '신조어'들도 나를 콧속 찔러주었다. 무심코 받아들였던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에 얼마나 남성중심적인지 알게 해주었다. 역사를 herstory로, 영웅을 sheros로. 제일 눈에 띄는 건 단연 '웬(wom)'과 '맨웬(manwom)'이다. 영어의 '우먼(woman)'과 '맨(man)'을 엮두어 두고 만든 것이 분명하다.

<이갈리아의 딸들>이 보여주는,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지금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나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느새 '맨웬'의 입장에서 '웬'을 원망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건 더더욱 아니다. 다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방식-서로가 대립하고, 싸우고, 원망하게 되는-이 아니라, "그래서 불쌍해"/"그래서 여성들이(남성들이)문제야"라는 결론이 아니라, "쭈쭈뽕뽕한 그녀"를, "볼륨업 예쁜 몸매"를, "발과 척추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예쁜 하이힐!"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세상을 함께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다.

부록**2008 청소년 인권선언**

1. 청소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 따윈 없다가!
 ♪ “미성년자”라는 말은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야. “미성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자!
 ♪ 나이가 적다거나 학생이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
 ♪ 처음 만나서 나이 좀 많다고 곧장 반말하거나 막 대하는 건 정말 뽀이야.
 ♪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건 아냐. 탈학교 청소년이라고 해서 문제아라고 낙인찍는 당신이 바로 문제라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차별받지 않아야 해.
2.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행동할 권리가 있어.
 ♪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의견을 표현하거나 시위나 집회나 점거를 하거나 수업거부나 시험거부나 등교거부나 가출 등등의 파업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권리가야.
 ♪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침해 현장에서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 “예의”나 “학생의 본분”, “자식의 본분” 같은 말로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위한 행동을 공격하거나 하면 못 써.
3.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우리를 위한다는 핑계로 니들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좀 존중하란 말야!
 ♪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업이나 가치관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
 ♪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짬뽕방, 게임방, 노래방 등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청소년통행금지 거리

를 지정하거나, 섯 다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라구!

- ♪ 만일 이 사회에 위험하거나 유해한 것들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해.
4.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
 ♪ 교사, 교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을 선택할 수도 탄핵할 수도 있어야 해.
 ♪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 시늉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실제로 충분히 반영하시오!
 ♪ 교칙이나 집안에서의 규칙 등을 정할 때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
 ♪ 청소년에게는 성탄절 썰이나 수능 떡값 등의 성금을 강제로 내지 않을 권리가 있어.
5. 청소년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돈을 쓸 때도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쓸 수 있어.
 ♪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먹거나, 교통비가 없어서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되거나,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보장이 있어야 해.
 ♪ 먹고 살기에 필요한 적절한 돈을 벌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아야 해. 어리다는 이유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번 돈을 남에게(부모 등등) 맡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거라구!
6. 청소년은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일하는 목적이 생계를 위한 것이건 다른 용도를 위한 것이건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해.
 ♪ 청소년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해!
 ♪ 노동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적절한 임금과 복

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착취를 당하지 않아야 해.

- ♪ 청소년에게는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고, 이런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 ♪ 청소년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시킬 수 없어. 예를 들면, 봉사시간을 채워 오게 하거나 다른 강압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이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행사에 강제로 참석시켜서는 안 돼.

7. 청소년들은 적절한 살 곳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

- ♪ 청소년들이 사는 곳은, 살만한 넓이와 시설의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생태적이면서 건강에 나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한 곳이어야 해.
- ♪ 쫓겨나서 살 곳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들(부모 등등)의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야 하거나 인권침해 등을 당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해.
- ♪ 가출은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적극적 표현 방식일 수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쉼터나 그룹홈처럼 지금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들도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해.

8. 청소년의 사랑과 성적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막거나 짓밟지 마!

- ♪ 청소년에게는 나이와 성적 지향(동성애, 이성애 기타 등등), 성적체성에 상관없이 짝사랑하고 연애하고 성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 ♪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어. 성은 청소년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스런 분야가 아니야.
- ♪ 청소년은 성매매나 성폭력, 성적 착취를 당하면 안 돼. 또 성매매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도 않아야 하지. 그러기 위해 청소년의 주거권이나 경제적 권리 등 다른 인권들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해.
- ♪ 이성애만이, 또는 여/남 성별이분법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건 무개념이야.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모두 차별 없이 존중하란 말야!
- ♪ 단, 성차별, 폭력을 저지르는 마초스런 행동 등은 인권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어!

9. 청소년에게는 자기 머리카락이나 복장 등을 마음대로 하고 꾸밀 권리가 있어.

-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게 하지 마! 사복을 입을 자유도 있다구!
- ♪ '학생다움' 또는 '청소년다움'은 누가 정하냐? 염색, 파마, 삭발, 레계, 고데기, 생머리 등등 청소년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

10. 청소년이 동네북이냐? 청소년은 위협적인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

- ♪ 때리지 좀 마! 교사나 부모(보호자)나 다른 어른이나 또래나, 누구든 우리에게 매질, 발길질, 주먹질, 기합, 모욕 등의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그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될 수 없어. '사랑의 매'는 거짓말이야.
- ♪ 청소년은 학도호국단 등으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어.
- ♪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살 권리가 있어. 입시경쟁이나 안전사고나 폭력이나 빈곤함 등을 비롯해서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직·간접적인 폭력들은 사라져야 해.

11. 청소년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해.

- ♪ 집에서 통금시간을 정해놓거나, 학교에서 밖에 나갈 때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아선 안 돼.
- ♪ 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국적 등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시설 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해.

12. 청소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알고 살 수 있어. 안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 ♪ 인터넷이나 거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 전단지, 영상 등등을 만들고 배포할 권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검열하거나, 허가받지 않았단 이유로 훼손하거나 탄압해선 안 돼.
- ♪ 청소년은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할 권리가 있어.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청소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집회를 할 수 있고,

집회를 했던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해.

-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정보를 못 접하거나 미디어를 쓰지 못하게 해선 안 돼. 청소년들에게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해.

13. 청소년은 자신만의 공간과 영역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 ♪ 부모나 교사나 경찰이 마음대로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기장이나 다이어리 등 우리만의 기록을 보는 건 인권침해야!
- ♪ 바꿀 수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로 우리에게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고, 지문을 다 찍어야 하는 주민등록증을 강요해선 안 돼. 급식비를 안 낸 사람을 걸러내려는 등의 이유로 함부로 지문을 찍게 해서도 안 돼.
- ♪ 야 이 스토커야, 너 내가 그렇게 좋나? 감시카메라로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스토커 짓은 우리의 안전을 핑계로 우릴 통제하는 거야!
- ♪ NEIS를 비롯한 성적 등등 개인 정보에 대한 공개는 인권침해야. 성적표도 맘대로 집에 보내거나 하지 말란 말야.

14.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상을 생각하고 주장할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어.

- ♪ 종교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강제로 종교의례에 동원하거나 헌금을 내라고 하지 말고, 종교를 가지고 차별하지도 마! 그리고 부모나 가족이 믿는 종교를 청소년들이 똑같이 믿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 ♪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지 마.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사라져야 해.
- ♪ 국가보안법이라거나 정부, 교사, 부모 등의 권력으로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특정 사상을 처벌하는 건 박물관으로 보내자.

15. 청소년에게는 인간답고 민주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고, 강제로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어. 교육에서는 인권이 지켜져야 해.

- ♪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신체적 조건이나 등등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에서 좀 알아서 했으면 해. 그리고 교육은 되도록 공짜인 게 기본 아니겠니?

- ♪ 공부 왜 해? 청소년은 시험 치는 기계가 아니야! 시험점수로 매겨진 등급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구. 입시경쟁을 폐지하란 말이다!

- ♪ 야간'자율'학습이라면서 강제로 실시하는 건 핑미?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만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해. 교과서건 뭐건 다 내용을 정해서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 말란 말야.

- ♪ 교육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고 소통이야.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해. 청소년에게는 교사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훈계는 너만 하나! 너나 잘하든지!

- ♪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살릴 수 있고 다양성 있는 교육과 넓게 생각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 ♪ 선후배 관계나 나이, 직위 등의 사이에서 차별이나 폭력, 외국인이나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이나 아웃팅, 폭력, 기타 인권침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을 알고 존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권교육은 꼭 있어야 해.

- ♪ 청소년은 역사적 진실을 알고 탐색하고, 사회의 현실, 과학적 지식,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기술들 등을 비롯해서 중요한 학문들과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만큼 많이 배울 권리가 있어. 외국어 교육은 영어 같은 한 언어만 신봉하고 뻑센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고 또 하고 싶은 외국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어야 해.

- ♪ 교육 환경은 충분히 좋아야 하고, 교육 재정이거나 예산도 충분해야 해. 예를 들어, 수십명씩 오밀조밀 부대껴야 하는 교실이라거나, 찌는 여름이나 끔찍어는 겨울에 에어컨, 히터 등을 교무실에만 뽕뽕하게 틀고 학생들은 손도 못 대게 하는 건 대체 뭐니?

16 청소년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

- ♪ 방학, 휴가, 공휴일이나 쉬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 건 물론이고, 생리나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 학교 등에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휴식시설이 마련되어야 해.

- ♪ 청소년은 잘 쉴 권리가 있어. 수업시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화장실이 급한데 못 가게 하거나 하면 안 돼. 병 걸리면 책임질 거야? 화장실의 청결 상태나 시설, 숫자도 충분히 좋아야 해.

- ♪ 잠 좀 자자! 우리는 충분히 컨디션이 회복될 만큼 잘 수 있어야 해.

- ♪ 뻑센 경쟁교육이나 생존의 위협 등도 청소년들이 충분히 쉴 수 없게 만들

기 때문에 없어야 해.

17. 청소년에게는 놀 권리가 있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 즐길 권리도 있지.

- ♪ 청소년은 자신의 취미를 즐길 수 있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 돈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보장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도 보장되어야 해.
- ♪ 보호라는 핑계로 19금 딱지를 붙이거나 공부하러면서 청소년들의 문화를 통제하거나 하는 건 부당해. 사진심으로 나이 제한을 두는 건 검열이고 통제야!
- ♪ 사회는 바람직하고도 다양한 놀거리들을 제공하고 장려해야 해야 할 책임이 있어.

18. 청소년은 먹고 싶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해.

- ♪ 청소년에게는 생태적이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 청소년은 취향이나 사상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 ♪ 담배나 술 등의 기호식품을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돼. 이것들이 정말로 유해하다면 이것들을 아예 없애거나 유해성을 알리고 줄이거나 끊는 것을 도와야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강제로 금지하는 건 청소년을 만만하게 본 인권침해야.
- ♪ 청소년은 원산지, 생산 방법, 유통 경로, 유해성 등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

19. 청소년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 충분한 휴식과 여유, 그리고 적절하고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등은 중요해.

- ♪ 청소년은 충분히 건강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해. 청소년의 건강권은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속에서 그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해.
- ♪ 의료 서비스의 과정에서 청소년이라거나 경제적인 조건 등등 때문에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해서는 안 돼.
- ♪ 학교에서 체력검사나 신체검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에이즈 감염 등 의료상의 정보를 함부로 알리거나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가족들에게 알려선 안 돼.

20. 청소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해.

- ♪ 청소년들은 충분히 실수하고 경험을 쌓아갈 권리가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꾸고 추구할 권리가 있어.
- ♪ 청소년들의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회가 가능한 한 제공해야 해.
- ♪ 청소년의 행복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것이어야 해. 청소년은 지금을 사는 인간이고, 미래로 삶이나 행복을 유예한 인간이 아냐.

P.S. 여기에서 선언한 권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로 오해해선 안 돼. 모든 인권은 소중하니까~



❖ **광고**

2008 안티 크리스마스 직접 행동단

“대리 크리스마스” 가 아닌 “안티 크리스마스” 를 제안해요!

크리스마스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그세근남비나 자선? 서로 사랑하는 남녀 케플? 눈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 이야길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집에서 부모에게 또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서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은 청소년이나 여성/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비혼 여성/ 이성이야가 당연한 것처럼 넘쳐나는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압박스러운 등성애 케플/ ‘크리스마스 때만 타듯한’ 자선의 손길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먹고살 것과 제대로 된 집을 보장해 줘서 언제나 사람답게 살 수 있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가족/가정에 몸담고 있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가족/가정을 고발하고 재구성하는 활동, <걸레 미니집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를 준비하고 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의 가족주의, 이성애주의, 온정주의를 비판하고 베푸는 활동을 하면서 우력들의 문제의식을 알려나가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계획은 크리스마스 카드 대신 인권 카드 나눠주기/ 가족주의나 이성애주의, 온정주의를 비판하는 전시/ ‘민중케플’ (또는 ‘계항케플’) 패러디 공연/ 크리스마스 날만 선물을 갖다 주는 산타가 아니라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고 바꾸자고 말하는 ‘블랙 산타’ 활동 등 여러 가지 상상들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케플라 시위를 할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모집중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이게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력공저력공 공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청소년인권단체만 할 일이 아니라 여성단체, 동성애단체, 사회공공성이나 사회권에 관해 운동을 하는 단체들도 다 같이 해볼 만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 단체들에게 어떤지 조심스레 제안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대리 크리스마스” 가 아닌 “안티 크리스마스” 를 위한 활동, 계획과 같이 해보지 않으실래요? ^^